

# 중동 석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諸要因

이 논문은 MEES지 편집장 와리드 핫드리씨가 일본의 월간「석유」지에 게재한 것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중동의** 석유를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간에 걸쳐 안정 공급이 확보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는 1973년의 제1차석유위기 이후 산유국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때때로 간과되는 것은, 그밖의 여러 요건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금후의 안정 공급 확보상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것은 예컨대, 유가의 급등락 가능성, 정치적 혼란의 영향, 재정적 제약 문제, 상황의 변화 등이 경시되기 쉽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황의 변화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석유에 관한 '70년대를 살펴보면, 1973년 중동전쟁 후와 1979년 2월 이란의 회교혁명후에 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대응하여 OECD 각국에서는 에너지절감, 석유증산, 석유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이 추진되었다.

'80년대가 되자, 8년에 걸친 이란·이라크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80년대를 통해 폭등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1985~1986년의 이란·이라크 전쟁의 최악의 시기에 폭락 사태까지 야기시켰던 것이다.

이 전기간에 걸쳐 공급의 안정이 깨지거나 공급이

두절되는 일은 없었는데, 이는 전쟁 당사국의 감산을 여타 OPEC 산유국들이 보전할만큼의 증산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1990년의 걸프전에 의해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수출이 중단되었을 때도 여타 OPEC국들이 이를 보전함으로써 공급 부족 사태는 전혀 야기되지 않았던 것이다. 전쟁중에도 안정공급 확보가 지켜졌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70년대에 어느 평론가는「중동의 걸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공급이 두절되어 유가 폭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제 4차 중동전쟁이나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고도 안전보장이 위협받은 일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70년대와 현재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과거엔 OPEC 각국에 생산 여력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화급한 불측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 OPEC 각국의 생산능력

현재 OPEC의 생산능력은 1992년에 2,500만b/d를 상회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2,700만b/d 이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MEES지의 예측에 의하면 1995년에는 3,200만b/d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반면에, 심각한 경제불황이 OECD 각국을 뒤덮고 있어서 석유수요 증대는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OPEC 각국에는, 생산능력 확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역시 사우디 아라비아이다.

사우디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520만b/d에서, 걸프전 후에는 850만b/d로 증대했으며, 1995년에는 1,000만b/d로 확장할 것이다.

사우디는 이러한 생산능력 확장을 외국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코스트가 매우 높은 투자가 될 전망인데, 800만b/d를 1,000만b/d로 확장하려면 130억 달러나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사우디에 대해서는 외국회사로부터 PS계약이든, 합작형식이든, 상류부문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나 사우디는 모두 거부하고 있다.

한편 쿠웨이트는 생산능력을 작년말까지 130만b/d까지 회복한 바 있으며, 1993년 말까지 235만b/d로 확대할 예정이다. 쿠웨이트에서는 현재 생산능력을 400만b/d로 증가하려고 논의중인데 아직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부다비는 외국기업의 협력에 의해 현재의 220만b/d의 생산능력을 250만b/d로 증강하려 하고 있다.

이란의 현재 생산능력은 370만~380만b/d인데, 1993년 3월까지 400만b/d로, 1993년 말까지는 450만b/d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란의 법률에는 PS계약도, 합작방식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새로운 협정이 일본 및 프랑스 기업간에 검토되고 있다. 또한 육상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해상 개발에 대해 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이라크는 여전히 유엔의 제재하에 있고 수출은 전혀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정부 발표의 생산능력은 200만b/d로 되어 있다. 현재 생산량은 100만b/d 정도이고, 국내 소비되고 있는 30만b/d 이외는 유전에 재주입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유엔 제재하에 있는 이라크에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데도 서방측 기업과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가 해제되면 PS 계약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0년대에 발견된 후 개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남부의 유전은 200만b/d의 능력을 지닌 거대유전으로 알려져 있다.

베네수엘라와 알제리는 과거 20년간 국영기업에 의해 석유산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외국기업에 참여를 촉구하면서 신·구 유전, 콘텐세이트 및 초중질유에 대해 폭넓게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기본적인 방침은 이란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업적인 의욕의 태동에 따라, 외국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외자 및 기술을 도입하려는 듯이 보인다. 그럼 왜 국영석유기업이 이처럼 방침을 변경한 것일까. OPEC 회원국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재정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재정적자 및 무역적자를 안고 있어서 외국의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 없이는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걸프지역 국가들도 예외가 아닌데, 쿠웨이트도 이라크의 침공에 의해 6,800억 달러의 피해를 당함으로써 자금 부족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OPEC 각국은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하는 데만 연간 200억~250억 달러가 필요하며, 이것은 그들의 연간 석유수입의 약 15~18%에 상당한다.

또한 OPEC 석유의 80% 이상이 20년 전에 발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OPEC 각국이 깊어지고 있는 과제가 얼마나 큰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금융 및 재정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PEC 산유국들이 생산능력을 확장하려는 것에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非OPEC의 생산능력은 1988년 이후 거의 확장되지 않고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신규 유전이 앙골라, 콜롬비아, 시리아, 예멘 등에서 발견되었으나, 구소련 및 미국의 감산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쇄되어 버렸다. 따라서 세계의 석유수요 증가는 OPEC의 증산에 의해 보전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원유가격은 저가격이 계속되어, 예컨대 1986~1990년의 두바이 원유의 실질가격은 평균 13.60 \$/B로 추이함으로써 석유회사들은 코스트가 높은

OPEC 회원국 개요 (1990)

	OPEC	인구	1인당	수출수입	石油	非石油	석유수출	원유	정제능력	석유제품	석유	석유	석유제품	석유
	가입년도		GNP	輸出收入	輸出收入	수입비중	생산량			생산량	소비량	수출량	수출량	수출량
	(年)	(萬人)	(\$)	(百万\$)	(百万\$)	(%)	(1,000b/d)		(1,000b/d)	(1,000b/d)	(1,000b/d)	(1,000b/d)	(1,000b/d)	(1,000b/d)
아랍에미리트	1960	1,487	6,380	43,675	39,700	3,975	90.9	6,428	1,758	1,069	734	4,850	930	5,780
이란	1960	5,750	4,306	18,800	17,300	1,500	92.0	3,183	766	740	851	2,172	40	2,212
이라크	1960	1,810	1,934	9,521	9,463	58	99.4	2,125	550	385	325	1,596	8	1,676
쿠웨이트	1960	214	8,319	5,839	5,536	303	94.8	1,178	670	530	65	645	380	1,025
베네수엘라	1960	1,973	2,437	17,500	13,958	3,542	79.8	2,135	2,458	1,039	375	1,242	617	1,859
카타르	1961	45	16,551	2,960	2,800	160	94.6	406	60	57	13	348	74	422
인도네시아	1962	18,265	528	25,700	8,700	17,000	33.9	1,281	751	711	630	685	240	924
리비아	1962	438	6,088	10,005	9,700	305	97.0	1,396	342	278	101	1,020	150	1,170
U A E	1967	170	19,805	21,990	15,000	6,990	68.2	2,060	162	188	116	1,865	190	2,055
알제리	1969	2,530	1,637	13,900	8,854	5,046	63.7	789	475	512	188	281	453	733
나이지리아	1971	13,103	201	13,950	13,200	750	94.6	1,727	401	286	291	1,550	30	1,580
에콰도르	1973	1,078	945	2,714	1,258	1,456	46.4	286	132	120	87	172	27	199
가봉	1975	119	3,804	2,389	1,967	422	82.3	269	20	15	6	240	2	242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1990

었다.

세계의 관심은 OPEC로 되돌아 오고 있는데, 이는 OPEC의 석유생산 코스트가 매우 저렴하고 매장량도 OPEC의 거대한부존량이 새삼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석유회사들은 OPEC 원유에의 참여를 도모하게 된 것이다.

### OPEC의 정치적 과제

그러나 OPEC 각국도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재정적 문제 외에도 정치적 문제도 지니고 있는데, 최근 수년간의 정치는 OPEC에 있어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

이란을 예로 들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이란이 입은 손실은 매우 커서, 1978~1979년 당시 600만b/d에 달했던 생산량이, 현재는 400만~450만b/d로 증산하는 데도 필사적인 상황인 것이다. 또한 Kharg島の 수출항 시설은 정전후 4년이 경과하고 서야 겨우 복구작업이 개시되고 있다.

리비아는 미국에 이어 유엔의 제재로 150만~160만b/d 이상의 증산은 못하고 있다. 리비아는 그동안 200만b/d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쿠데타 미수가 발생하는 등 재정적 문제와 사회 불안을 안고 있다. 급후 2년간 340만b/d 생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세기 중에 400만b/d를 생산하기로 변경하였다. 이라크의 석유 산업은 파괴가 커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

런데 이들 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의 분쟁이다.

현재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에는 평화 회담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이 회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담이 장기간 계속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회담에 따라 중동에 큰 변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 이 지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번 걸프전의 여파를 살펴보면, 우선 쿠웨이트가 개방된 사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 지역에 있어 미국의 패권이 매우 강대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걸프지역 국가들은 종전 이상으로 미국의 방위력, 또는 안전보장력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걸프지역의 아랍 국가들과 타지역의 아랍 국가들, 또는 유럽과 아랍 국가들 간에는 진공상태가 있어서 항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예컨대 걸프전 종결 후에 UN 안보리 5개국이 중동국가들에게 매각한 무기는 5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중동지역의 군축문제에 대한 회담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중동 국가들은 고도의 정밀 무기를 유엔 안보리 국가들로부터 경쟁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동지역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수많은 국경분쟁이다. 그중에는 해결된 것도 있는데, 오만과

예멘은 10년간의 오랜 협상 끝에 해결되었으나, 사우디 아라비아와 예멘이 장기간 국경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곳은 다수의 석유회사가 조업하고 있는 지역으로 협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밖에 이란과 UAE, 카타르와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와 바레인에도 분쟁이 있으며, 걸프전을 야기시킨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심각한 국경분쟁도 있다.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회담이 개최되고 있으나, 진실한 의미의 위기관리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아마 향후 본격적인 변혁이 찾아오기까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인 요인으로 주시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이라크이다. 걸프전은 쿠웨이트를 해방시켰다. 그러나 이라크는 장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라크에는 중앙집권정부는 있지만, 유엔의 제재가 있고 정치적 개입이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이 지역 세력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존재이다. 그 영향은 정치 뿐만 아니라 세계의 석유에도 파급되는 것이다.

정치 요인으로서 이러한 상황을 향후 수개월간에 걸쳐 주시하는 일이, 이 지역의 정치 정세 및 석유동향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

### 중동지역 천연가스의 전망

걸프 지역에서 또하나 중요한 것은 향후 10~20년을 내다보면 석유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이 지역에 공급의 다수를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이다.

걸프지역이 천연가스의 공급 및 수출에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것은, 극동이나 유럽에 대해 수출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위를 보면, 천연가스 산업은 석유에 비해 2차적인 지위를 감수해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고조로 인해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는 향후 점차 증대할 추세에 있다.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이 지역의 수출량은 연간 438억<sup>m<sup>3</sup></sup>인데, 200억<sup>m<sup>3</sup></sup>가 파이프라인으로, 나머지는 LNG로 수출되고 있다.

중동 천연가스의 장래 전망에는 3개 단계가 있

며, 그 첫번째는 기존 프로그램의 확대이다.

현재 이 지역의 최대 수출국은 알제리로서 연간 320억<sup>m<sup>3</sup></sup>의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180억<sup>m<sup>3</sup></sup>는 LNG로,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능력을 1995년을 목표로 600억<sup>m<sup>3</sup></sup>로 증가할 계획이 있다. 주요 확장은 파이프라인으로, 지중해를 경유해서 이태리에 240억<sup>m<sup>3</sup></sup>, 스페인에 70억<sup>m<sup>3</sup></sup>를 운송한다는 대규모 계획이다.

그밖에 생산확장 계획으로 아부다비의 다스島の 계획이 있으며, 460톤의 對일본 수출을 위해 2년간 능력을 확장한다.

이란은 유럽에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할 계획의 타당성조사를 프랑스 가스社에 의뢰해서 분석중이며, 수량은 250~300억<sup>m<sup>3</sup></sup>/年이 될 전망이다. 이란이 LNG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LNG는 플랜트의 초기 코스트가 높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편이 훨씬 이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란은 구 소련의 남부 공화국에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두번째 파이프라인을 바레인으로 향해 건설 중이다.

對유럽 수출계획에 관한 FS가 끝나고 건설자금이 확보되면 수년후에는 상당히 확대될 것이 기대된다. 이상이 중동 및 북아프리카의 천연가스 프로젝트의 현황이다.

제2단계로는, 판매계약에까지 이른 프로젝트가 있으나, 단 1건에 불과하다. 일본의 中部電力社가 카타르와 계약한 수량은 연간 400만톤으로, 이것이 유일하게 판매계약 체결에 이른 사례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걸프지역 국가들과 일본의 LNG 거래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므로,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크며, 1997년에 최초로 인도된다.

제3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것은 몇몇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 각국, 일본, 한국 간에 행해지고 있는 신규 가스계약에 관한 협상이다.

카타르는 적어도 2개의 LNG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태리, 또 하나는 일본에 대한 것이다. 오만의 프로젝트는 셀과 미쓰비시社의 제휴에 의한 것이다.

프런티어 지역에서의 탐사, 개발을 할 수가 없게 되  
리비아에서는 이태리의 AGIP과의 협의가 계속되  
고 있으나 아직은 관계계약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 걸프 제국의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서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및 리비아는 남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에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걸프 각국에서는 카타  
르, 이란, 오만 등이 극동, 일본 시장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에 있다.

현재의 천연가스 가격으로는, 설령 새로운 대규모  
LNG 산업을 걸프 각국에 설립하더라도 이익을 얻기  
가 힘들 것이다.

일례를 들면, 카타르에서부터 이태리로 천연가스  
를 수출하는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유정두 가격은  
10센트/Mbtu로 추정되어, 현재는 저가격이지만 6  
~7년후에 가동하는 시점이 되면 가격은 상승할 것  
이라는 기대 아래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경위가  
있다. 가격 상승은, 환경문제가 가져오는 압력과 천  
연가스 가격이 석유가격과의 연계로부터 분리되었  
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의 천연가스 수출(1991)

(단위 : 10억 m<sup>3</sup>)

순 위	국 명	파 이 프 라 인	L N G	計
1	소 련	106.7 (44.3)	- (0.0)	106.7 (33.5)
2	캐 나 다	47.4 (19.7)	- (0.0)	47.4 (14.9)
3	화 란	38.5 (16.0)	- (0.0)	38.5 (12.1)
4	알 제 리	14.8 (6.1)	18.9 (24.5)	33.7 (10.6)
5	인 도 네 시 아	- (0.0)	30.0 (39.0)	30.0 (9.4)
6	노 르 웨 이	25.0 (10.4)	- (0.0)	25.0 (7.9)
7	말 레 이 시 아	- (0.0)	9.5 (12.3)	9.5 (3.0)
8	브 루 네 이	- (0.0)	7.0 (9.1)	7.0 (2.2)
9	호 주	- (0.0)	5.2 (6.8)	5.2 (1.6)
10	U A E	- (0.0)	3.5 (4.5)	3.5 (1.1)
11	美 國	1.5 (0.6)	1.3 (1.7)	2.8 (0.9)
12	이 란	2.5 (1.0)	- (0.0)	2.5 (0.8)
13	볼 리 비 아	2.2 (0.9)	- (0.0)	2.2 (0.7)
14	리 비 아	- (0.0)	1.6 (2.1)	1.6 (0.5)
15	덴 마 크	1.3 (0.5)	- (0.0)	1.3 (0.4)
16	독 일	1.2 (0.5)	- (0.0)	1.2 (0.4)
	計	241.1 (100.0)	77.0 (100.0)	318.1 (100.0)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서 作成.

<주> ( )는 세어

### 향후 전망

OPEC는 최근 안정된 상황에 있다. 그 이유는 첫  
째로 OPEC는 지난 수년간 생산 할당을 통해 안정된  
공급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지난 번의  
걸프전을 거쳐 사우디 아라비아가 재차 맹주의 지위  
를 회복하여, 현재는 기본 방침으로서 다음과 같은  
2개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①

유가는 석유 수요가 증대하지 않는 한 상승시켜서는  
안된다. ② 감산은 각국의 현재 생산수준 내지는 생  
산능력에 비례한 감산이어야 한다.

물론 사우디의 이 주장에 모든 OPEC 회원국들이  
찬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OPEC는 이 정책을 받아  
들이고 있다. 결국 이라크가 시장의 아웃사이더로  
있는 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OPEC의 생산수준은 생산능력의 99.5%에

세계의 천연가스 수입(1991)

(단위 : 10억m<sup>3</sup>)

순위	국명	파이프라인	L N G	計
1	독일	일	- (0.0)	60.4 (19.0)
2	日本	本	50.7 (65.8)	50.7 (15.9)
3	美國	國	1.9 (2.5)	49.3 (15.5)
4	이탈리아	아	0.1 (0.1)	33.6 (10.6)
5	프랑스	스	9.2 (11.9)	31.2 (9.8)
6	체코슬로바키아	아	- (0.0)	12.8 (4.0)
7	벨기에	에	4.1 (5.3)	10.7 (3.4)
8	英國	國	- (0.0)	6.7 (2.1)
9	헝가리	리	- (0.0)	6.1 (1.9)
10	불가리아	아	- (0.0)	6.0 (1.9)
11	폴란드	드	- (0.0)	5.9 (1.9)
12	스페인	인	5.2 (6.8)	5.2 (1.6)
13	오스트리아	아	- (0.0)	5.2 (1.6)
14	루마니아	아	- (0.0)	4.6 (1.4)
15	유고슬라비아	아	- (0.0)	4.4 (1.4)
16	터키	키	- (0.0)	4.3 (1.4)
17	韓國	國	3.7 (4.8)	3.7 (1.2)
18	핀란드	드	- (0.0)	2.8 (0.9)
19	구소련	련	- (0.0)	2.5 (0.8)
20	화란	란	- (0.0)	2.3 (0.7)
21	기타	타	2.1 (2.7)	9.7 (3.0)
	計		77.0 (100.0)	318.1 (100.0)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서 作成.  
 <주> ( )는 세어

달하고 있으며, 여력이 있는 국가는 사우디, 이란, UAE, 베네수엘라 등이다. 이라크가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향후 OPEC 총회에서는 별로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OPEC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라크가 시장에 복귀했을 때지만, 이라크가 가까운 장래에 시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가 급속히 변할 것 같지 않으므로,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허용되는 시기는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령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라크의 수출이 재개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수출이 가능해지면 이라크는 150만b/d로의 증산을 실시하여, 터키 경유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100만b/d, 걸프지역에서 50만b/d가 시장으로 유입되어, 유가는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해서 OPEC 내부에서 이라크 증산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누가 감산하며 감산의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등은 OPEC로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몇몇 국가들이 수십억 달러, 수백억 달러를 들여 산유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 이란, 쿠웨이트, UAE, 베네수엘라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 국가들이 즉시 감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OPEC 내부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 없으며, 특히 사우디와 이란간에는 생산능력을 가능한 한 증대시켜 두려는 경쟁이 격화될 것이 예상된다. 그것은 기정 사실로 생산능력을 증대시켜 줌으로써 이라크가 시장에 복귀했을 때 생산 할당을 自國에 유리하게 하려는 속셈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라크의 수출재개를 유엔이

어느 시점에서 허가하느냐는 불분명하고, 또한 OECD 각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회복되느냐, 그리고 경기 회복이 OECD 국가들의 석유수요를 얼마나 회복시키느냐 등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못하면, OPEC으로서도 이라크의 증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힘들 것이다.

걸프지역 국가들은 향후엔 석유 뿐만 아니라 천연

가스에 있어서도 점차 극동 및 유럽에서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데도 이 지역의 위기관리체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 또한 이 지역 국가들에게는 국내적으로나 상호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이, 안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적인 불안정 상태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

<유개공, 주간석유뉴스>

## ■ 시사용어 ■

### 추가更正 예산

특별한 必要가 있을때  
本豫算과 별도로 편성

본 예산과 별도로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 본래 짜여졌던 본 예산외에 예상하지 않았던 지출이 생길 경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도록 예산회계법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모든 예산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예산이 실행단계에 들어간 후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경비가 생겼을때 정부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있다.

예산은 성립내용을 중심으로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으로 구분한다. 본예산은 당초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성안된 것이다.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 제출한 예산을 말한다. 반면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성립후 발생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 생길때 본예산과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란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1조원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中企물품구입 구조조정기금 확충등에 지출할 예정이다.

### 프라임레이트

信用도가 제일높은 企業에  
적용하는 貸出금리

우량기업대출금리. 신용이 가장 높은 기업에 대출할때 적용하는 금리다.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므로 기준금리라고도 한다.

신용도가 제일 높은 기업은 일반 대출금리중 가장싼 프라임레이트를 적용받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여기에 일정금리가 가산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프라임레이트는 일반대출금리의 하한선이 된다.

프라임레이트는 기업의 자금수요와 금융시장의 자금수급사정에 따라 결정돼 경제사정을 잘 나타내 준다. 경우에 따라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에 연동돼 금융정책에 의해 변동되기도 한다.

「1·26금리인하」후 은행의 일반대출과 신탁은행이 일반대출과 신탁대출의 프라임레이트는 각각 연9.0%와 10.0%이다. 일반대출의 경우 신용도별로 5단계로 차등화, 최고 2%포인트까지 가산할수 있다. 신탁대출은 3단계로 차등화, 최고 2%포인트까지 가산되며 비제조업체는 1%포인트가 추가로 덧붙여진다.

단자사의 프라임레이트는 현재 연 10.5%이다. 당초 기업의 신용에 따라 3단계로 차등화됐었으나 지금은 기간별로 3단계로 차별화돼 2%포인트까지 차이가 난다.